



삼례중앙 가정통신문

제43회 장애인의 날 안내

제2023-49호

홈페이지 www.jb-samjung.es.kr

전화 291-2239

‘차이’가 ‘차별’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.

1 장애인의 날



초목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며 새 생명의 힘찬 기지개를 켜는 4월, 가정에 화목한 일들만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.

매년 4월 20일은 ‘장애인의 날’입니다. 여러분은 ‘장애인’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? 장애인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. 장애인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.

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,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또한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고 이웃입니다.

2 시각장애인 안내견

시각장애인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.

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함께 보행하며 실내외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의 90% 이상은 공격성이 낮고 친화적이고, 높은 체력과 지능을 가진 리트리버(Retriever)종입니다.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안내견 친구들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

*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, 청각장애인 보조견, 지체장애인 보조견,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

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하는 에티켓



× 만지지 말아 주세요



안내견의 집중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안내견을 만지거나 부르는 행위는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행에 지장을 줍니다.



×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



시각장애인을 돕는 임무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, 안내견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

× 사진은 찍지 말아 주세요



안내견 사진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한 후 찍어주세요.



× 만지지 말아 주세요



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내견을 놀라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.



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을 환영해주세요



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이용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

위급상황시,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주세요



마음이 앞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잡을 경우, 깜짝 놀라 더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


2023년 4월 20일

삼 레 중 앙 초 등 학 교 장